



“이 사람아! 이음새 하나가 천년을 결정 하는겨”라는 모 증권회사의 CF광고 한마디는 시청자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전통문화를 알리고 싶었던 최기영 대목장이 건축현장에서 중요한 ‘이음새’를 광고 멘트에 넣은 것이다.

#이음새 하나가 천년을 결정

“그 한 마디는 후배 장인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 우리의 전통 건축물은 이음새 하나로 백년을 가기도 하고 천년을 훨씬 넘기도 해. 봉정사 극락전이 천이삼백 년 된 건물인데 아직 견재하잖아요.” 예부터 ‘대목장(大木匠)은 정성감이야 한다’는 속담이 있다. 조선 세종시대 기록에 의하면, 1497년 승례문 개축공사 때는 대목장이 정 3품 벼슬에 임명되기도 했을 만큼 우대했다. 현재 국보급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들이 대부분 목조 건물인 것을 인식할 때 오늘날에도 대목장에 대한 예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특수공 석조전에서 열리는 ‘제9회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전’ 준비로 분주한 최기영 회장을 만났다.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 도편수 보유자이자 (사)한국 문화재기능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기영 대목장은 육십 다섯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몸은 다부져 보였고, 목소리는 우렁찼다. 전통문화에 대한 그의 애착이 남다르다 보니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에 쏟는 정성 또한 대단하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전’의 공신력과 위상은 대단히 높다. 올해는 대목, 소목, 목조각, 석조각, 칠공예 등 13개 분야에 150여명이 참가하여 200점에 달하는 작품을 내놓았다.

#실기 이론 고루 갖춘 장인 배울

최기영 대목장은 지금 남양주에 대해 1만6000㎡에 건평 5000㎡에 달하는 ‘중요무형문화재 대목장 전문교육관’을 건립하고 있다. 사재를 다 털어서 건립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길이 보존하기 위한 것이고, 전통건축을 공부하는 후배 장인들을 위해서다. 각 시대의 대표작품과 무형문화재의 작품 등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한 눈에 다 볼 수 있도록 전시할 계획이며, 강의실을 마련하여 실기 뿐 아니라 이론에도 능한 장인들을 배출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최기영 대목장은 10대 시절 궁핍했던 집을 떠나 불제자가 되고 싶어 오대산 상원사로 들어갔다. 머리 깎고 탄허 큰스님 시종을 들면서 행자로 지냈다. 행자 생활을 한 지 8개월이 지났을 무렵 상원사에 큰 불사(佛事)가 있었다. 깊은 산중에서 진행되는 불사의 현장을 지켜보았던 열일곱 살 소년은 무언가 끌리는 것이 있어 일 좀 배우게 해 달라고 졸랐다. 그것이 목수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되었고 오늘날의 중요무형문화재 최기영 대목장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다.



“난 그냥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일이 아니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일해 왔어.”

17살 때 시작한 목수 일이 두 해가 모자라는 50년 세월을 앞두고 있으니, 반세기를 달려 온 셈이다. 2000년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도편수 대목장’ 보유자로 인정받았으니, 그동안의 모진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

목수일의 시작은 끝 다루는 일부터 시작하여 끝질에서 대패질, 대패질에서 자귀질, 자귀질에서 드디어 먹 굿는 일로 나아가는 것



이다. 남달리 눈썹미가 좋고 손 땀기가 있던 최기영 대목장은 먹 굿는 일은 단연 으뜸이었다. ‘먹을 굿는다’ 것은 건물을 설계하고 구조를 결정하는 일인데, 먹 굿는 솜씨를 갖추어야만 대목장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다. 그가 이제까지 해쳐 보수하거나 새로이 지은 건물은 안동 봉정사, 마곡사, 송광사, 단산서원, 용문사, 태안사, 왕건 사당, 봉은사, 청평사 등 200체가 넘는다. 그중에는 최고 문화재급 건축물도 많다.

#백제의 건축을 되살리다

대목장은 기술뿐 만 아니라 재료를 골라내는 탁월한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며, 풍수지리에도 능해야 하니 다재다능한 것은 틀림없다. 목재에 대해서 물었더니, “우리나라의 소나무는 사계절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강(剛)과 유(柔)가 반반씩 섞여 있어 재질이 좋을 뿐만 아니라 송진의 질도 좋아 제일로 치지요. 그리고 목구조는 찢어지고 망가지면서도 스스로 버티어 낼 수 있을 때까지 버티어 내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답했다.

“장인의 비결 별 것 아냐. 바른 생각과 안목을 가져야 해. 스승이 열 개를 알고 있으면 가르쳐 주는 것은 세 개 정도야. 그 나머지는 스스로 알아야 해. 남 잘 때 특수공 당장을 쉰 수 없이 넘었고 그곳에서 밤을 새기 일쑤였어. 남 쉰 때 대패질과 못질을 한 번이라도 더 했으니 여기까지 온 거.” 그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자 본 일 없고, 일 년에 일주일 이상 쉬어 본 적이 없다”고 회고했다.

최기영 대목장은 고궁의 건축양식과 문양 등을 살펴며 목학으로 연구하였고, 건물의 설계도면까지 그려낼 정도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하고 있다. 뒤늦게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고 2002년에는 교육 인적자원부로부터 학사학위를 받았다. 막내아들과 같이 대학원 수업을 들으며 건축학을 공부했을 정도로 그의 학구열은 뜨겁다. 지금은 한양대, 고려대, 목원대, 중앙대, 인하대 등 여러 곳에 강의를 나간다.

한수 이남에선 천년 역사를 떠나려는 또 한편의 대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책임 감독을 최기영 대목장이 맡고 있다. 충남 부여군 합정리 일대 백만 평에 들어선 <백제역사 재현단지>는 백제가 부여를 도읍으로 삼았던 서기 600년대 한옥 184동을 되살리는 작업이다.

천 년 전 전란 속에 불 타버려 국내에선 이미 사라진 백제 건축양식을 찾기 위해 백제와 활발하게 교류했던 중국의 낙양·서안과 일본의 교토·나라 등을 20여 차례 답사하여 고궁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대들보와 서까래에 걸친 목재가 지렛대 역할을 해 처마의 하중을 버티주는 백제시대 ‘하양식(下昂式) 공법’을 밝혀내었고 그것을 백제 궁궐에 적용했다. 200체가 넘는 건축물 가운데 최고 작품은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기능인의 작품이란 세월이 흐를수록, 숙련 될수록 더 좋은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현재보다 좋을 수는 없는 것이야. 그래서 나는 현재 짓고 있는 작품이 최고야.”

이 한 마디에 사람들이 왜 그를 두고 ‘최고의 장인’이라 칭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지를 알게 되었다. 최기영 대목장이 천 년도 거뜬히 버티어 낸다는 소나무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글·사진·문은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Advertisement for Buddhist art products including gold sutra books, gold screens, Dalma calligraphy scrolls, and scrolls. Includes product images and descriptions.

Advertisement for 'Onyeolbokdae' (온열복대) health products. Claims to be effective for back pain and joint issues. Includes product image and contact information.